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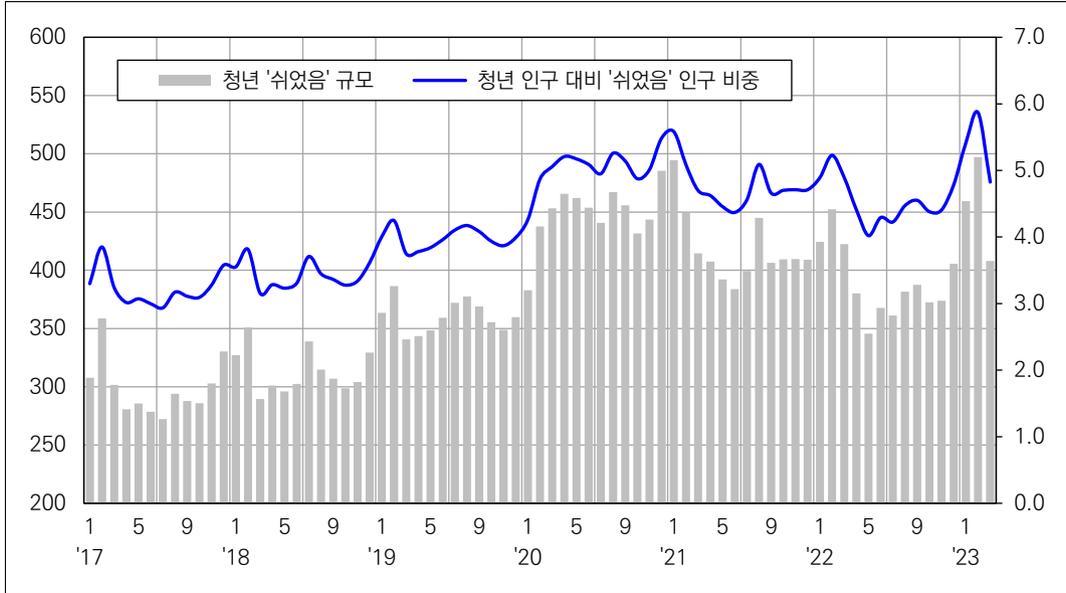
청년층 ‘쉬었음’ 인구 변화 및 향후 취업 계획 현황

-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를 ‘쉬었음’¹⁾이라고 응답한 청년층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됨. 청년층 고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고 있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청년의 유희인력화의 원인으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수준과 실제 일자리 수준간의 간극, 즉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목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와 8월 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 규모 변화와 그 사유, 향후 취업계획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쉬었음’ 인구 증가가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것인지, 또한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청년의 유희인력화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 청년 ‘쉬었음’ 인구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 시기에는 4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로 50만 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남.
 - 2019년에 36만 명이던 청년 ‘쉬었음’ 인구가 2020년 약 45만 명, 2021년 약 42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코로나19 영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2022년 39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3년 초 그 규모가 다시 증가 중임.
 - 청년 인구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체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을 살펴 보아도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청년 ‘쉬었음’ 인구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매년 2월에 청년층 ‘쉬었음’ 인구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최근 급격한 ‘쉬었음’ 인구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함. 주로 육아, 가사, 학업, 연로,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라 정의함.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일 없이 쉬었음을 의미함.

[그림 1]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규모(좌축) 및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우축)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청년 '쉬었음' 인구 변화를 인구특성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학력별, 연령별로 '쉬었음' 인구 변화의 특징을 알 수 있음.

- 성별로는 2022년 기준으로 남성 '쉬었음' 청년 인구가 22만 7천 명, 여성은 16만 2천 명으로 남성 '쉬었음' 인구 규모가 더 컸음. 특별히 특정 성별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음.
- 학력별로는 고졸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청년 '쉬었음' 인구 중 60.5%(23만 6천 명)가 최종학력이 고졸이었음. 대졸 '쉬었음' 인구는 전체 중 17.2%(6만 7천 명)로 상대적으로 소수였음. 고졸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다소 증가했음.
- 코로나19 영향기 이전에는 20대 초반(20~24세) '쉬었음' 인구가 상대적 다수였으나, 2020년 이후 20대 후반(25~29세)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남.
- 2020년 이후 직장 경험이 있는 '쉬었음' 인구가 늘어남. 2019년까지는 그 규모가 약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약 32만 명으로,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쉬고 있는 청년이 많아짐.
- 종합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청년 '쉬었음' 인구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주로 고졸, 20대 후반의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이 현재 쉬고 있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가 그들의 취업 의욕 저하, 나아가 유희인력화로 이어질지 가름해 보기 위해 '쉬었음' 인구의 사유 및 향후 취업 계획에 관해 살펴봄.

- 청년이 쉬는 주요 사유는 '희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질병', '다른 일 준비를 위해서' 등이었음.
- 청년 '쉬었음' 인구를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었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전체 '쉬었음' 인구의 27.8%로 가장 많았음. 2020년에는 전년대비 해당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즉,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쉬었음' 인구 증가가 상당수 관찰되기는 하나 그 비중이 2021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표 1〉 청년 '쉬었음' 인구의 주요 사유별 현황

(단위 : 천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년 '쉬었음' 인구	315 (100.0)	378 (100.0)	467 (100.0)	445 (100.0)	382 (100.0)
질병	78 (24.9)	76 (20.2)	99 (21.2)	96 (21.7)	90 (23.6)
퇴사(정년퇴직 등)	11 (3.6)	23 (6.0)	13 (2.7)	19 (4.3)	17 (4.4)
희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99 (31.5)	126 (33.4)	179 (38.3)	150 (33.7)	106 (27.8)
일자리가 없음	23 (7.4)	24 (6.4)	36 (7.6)	45 (10.1)	36 (9.5)
다른 일 준비 기간	54 (17.0)	59 (15.6)	77 (16.5)	80 (18.0)	75 (19.5)

주: '쉬었음' 사유 중 계절성 일자리, 직장 휴·폐업, 기타 사유의 경우 중요성 및 비중이 낮아 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비경제활동부가조사」, 각 연도.

○ 취업 계획 유무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년 '쉬었음' 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의 비중이 더 높고, 취업 비희망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았음.

- 2022년을 기준으로 청년 '쉬었음' 인구 중 65.1%가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 비중은 코로나19 영향기에 소폭 높아졌음. 취업 의사는 있지만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쉬고 있는 사례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음.
- 1년 이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청년들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질병이나 사고 사유(30.1%)와 학업 및 진학준비 사유(29.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유보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직장을 찾기 어려워져 향후 1년 내 취업 계획도 없이 현재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은 2021년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소수임. 즉, 청년 '쉬었음' 인구 중 취업 의사가 없는 집단 내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취업 의사가 없어진 청년은 많지 않고, 늘어나고 있지도 않았음.

〈표 2〉 청년 '쉬었음' 인구의 향후 1년 이내 취업 희망 여부 및 취업 비희망자의 주요 사유 분포 현황

(단위 : 천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년 '쉬었음' 인구	315 (100.0)	378 (100.0)	467 (100.0)	445 (100.0)	382 (100.0)
향후 1년 이내 취업 희망	205 (65.2)	266 (70.5)	347 (74.3)	316 (70.9)	248 (65.1)
향후 1년 이내 취업 비희망	110 (34.8)	112 (29.5)	120 (25.7)	129 (29.1)	133 (34.9)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44 (40.5)	36 (31.9)	47 (39.1)	43 (33.1)	40 (30.1)
학업 및 진학준비	18 (16.5)	28 (24.8)	25 (21.0)	22 (16.6)	39 (29.4)
원하는 임금수준의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	14 (12.6)	13 (11.4)	14 (11.9)	34 (26.4)	15 (11.3)

주: 1) 1년 이내 취업 비희망자의 사유 비중의 경우 취업 비희망자를 100으로 두고 사유별 비중을 계산한 것임.

2) 향후 1년 이내 취업 비희망 사유 중 육아, 가사, 결혼,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의 경우 비중이 낮아 표시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비경제활동부가조사」, 각 연도.

○ 종합하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청년 '쉬었음' 인구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임. 다만, 쉬고 있는 청년의 증가가 취업 의욕을 상실한 청년의 증가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청년이 쉬고 있는 사유와 향후 취업계획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사 자체가 사라져 유희인력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음. 단, 최근 추세를 감안했을 때 청년 '쉬었음' 인구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KLI**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